

해제 : 포클로어 연구란 무엇인가

박승현

시마무라 다카노리는 간세이가쿠인대학 사회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 저서로는 『<生きる方法>の民俗誌—朝鮮系住民集住地域の民俗学的研究—』(関西学院大学出版会), 『引揚の戦後』(編著, 新曜社), 『近代日本の他者像自画像』(共著, 柏書房), 『越境』(現代民俗誌の地平1, 共著, 朝倉書店), 『身体と心性の民俗』(講座日本の民俗学2, 共著, 雄山閣出版), 『物と人の交流』(日本の民俗3, 共著, 吉川弘文館) 등이 있다. 재일조선인의 전후 사회공간과 문화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의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하기도 하여 한국과 인연이 깊은 연구자이다.

이 논문은 「フォークロア研究とは何か」라는 제목으로 『日本民俗学』 287호(2014년 5월)에 실린 글이다. 여기서 저자는 스스로의 연구를 ‘포클로어 연구’라고 명명함으로써, 기존의 민속학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세계적인 포클로어 연구(Folkloristics)와 소통 가능한 현대민속학(Living Folklore)의 방향을 제시한다. 인류의 버네쿨러의 다양성과 창조성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대화 가능한 것이 될 수 있을까를 모색하고, 내발성에 뿌리를 둔 민속학 연구가 세계적인 비교연구로 확장될 수 있기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뿐 아니라 세계 각 지역의 민속학이 글로벌 시대에 마주하고 있는 공동의 문제의식이며 또한 공동의 과제일 것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중국은 글로벌 포클로어 연구의 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민속학적 비교연구의 상대라는 점에서, 본 논문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